



新羅時代의 尺과 干-技術職으로서의 尺의 성립과 地位 변화를 중심으로-

Chuk(尺) and Khan(干) of Shilla Period

저자 (Authors) 노중국
Noh Choong-Kook

출처 (Source) [한국고대사연구 23](#), 2001.9, 259-295 (37 pages)
[The Journal of Korean Ancient History 23](#), 2001.9, 259-295 (37 pages)

발행처 (Publisher) [한국고대사학회](#)
Society for Korean Ancient History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0584707>

APA Style 노중국 (2001). 新羅時代의 尺과 干-技術職으로서의 尺의 성립과 地位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고대사연구, 23, 259-295.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210.178.101.***
2020/03/19 14:17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新羅時代의 尺과 干

- 技術職으로서의 尺의 성립과 地位 변화를 중심으로 -

盧重國*

I. 머리말	IV. 技術職名의 표기 변화
II. 技術職名으로서의 尺	1. '人'에서 '尺'으로
1. 尺의 용례	2. 雁鴨池出土碑의 건립시기 검토
2. 尺의 성격	V. 尺의 사회적 지위 하락과 그 배경
III. 技術職名으로서의 干	1. 尺의 사회적 지위 하락
1. 御龍省 산하 관청에 보이는 干	2. 지위 하락의 배경
2. 內省 산하 '官員數闕' 관청 검토	VI. 맺음말

I. 머리말

한 사회에서 일정한 사회 집단이나 그 집단의 기능을 나타내는 용어는 사회적 상황이 바뀌게 되면 본래의 기능이나 성격과는 다른 기능이나 성격을 나타내기도 한다.¹⁾ 신라시대에 이러한 변화의 일단을 추적해 볼

* 계명대학교 교수

대표논저 : 1988 『百濟政治史研究』, 一潮閣 ; 1999 「신라시대 성씨의 分枝化와 食邑制의 실시」 『韓國古代史研究』 15 ; 1999 「백제 武王과 知明법사」 『韓國史研究』 107

1) 그 예로서 신라 中古期에 半官半民의 청소년 조직인 花郎徒가 통일전쟁기를 거치면서 무사도 집단으로서 국가권력을 지지·옹호하는 성격을 지녔으나, 신라 말기로 오면서 그 성격도 귀족들의 문객 및 사병적 집단으로 변질되어갔고, 마침내 조선시대에 와서는 歌舞組合의 기능만 남아 巫夫·倡優·遊女·舞

수 있는 사례의 하나로는 尺과 干을 들 수 있다. 干은 처음에는 首長·族長을 의미하는 용어였고, 尺은 초기국가 단계에서는 수장인 干 아래의 관명으로 사용되다가 중앙집권체제가 갖추어지면서 ‘尺干’의 형태로 귀족관료들의 상하 서열을 나타내는 관등 명칭에 사용되었다.

그러나 6세기 후반에 들어오면서 尺은 기술직이나 특정 물품을 제조하는 職名에 사용되기 시작하여 점차 일반화되어갔고, 干도 통일 이후 왕실 업무와 관련한 부분에서 기술직명으로 사용되기 시작하고, 통일 이후에는 그 사용이 일반화되어 갔다. 그에 따라 기술직으로서의 적은 사회적 집단으로 範疇化되어 가면서 그 사회적 지위도 점차 낮아지게 되었다.²⁾

신라시대에 기술직명으로서의 尺·干的 성립과 그들의 사회적 지위의 하락은 사회 분화의 진전 및 사회구조의 변화와 일정하게 대응된다. 중앙집권적 국가체제가 갖추어진 이후 신라사회의 분화는 阿湊 重位制나 大奈麻·奈麻 重位制에서 보듯이 頭品 신분층에서도 일어났지만 雜業이나 기술직을 담당하는 층에 이르게 되면 이러한 분화는 보다 세분화

童 등을 가리키는 말로 쓰이게 된 것을 들 수 있겠다. 화랑도에 대해서는 이 기동, 1984 『신라골품제사회와 화랑도』, 일조각 참조.

- 2) 尺의 성격에 대해 양주동은 “[치]는 원래 [上]의 고운 자[城上정자, 還上환자]의 주격형 [자히]의 縮約語이니 마치 [尺干](자한)이 [浪·粲]으로 축약됨과 倣似하다. [치]가 존칭이되 卑稱으로 轉하듯이(그러치·거러치), [자히](현행어 [쟁이])도 특수 직업인의 천칭으로 점차 義轉되었다. 곧 [尺]이 그것이다”라 하여 尺=자히는 처음과는 달리 卑稱으로 義轉된 것으로 보고 있다(양주동, 1946 『朝鮮古歌研究』, 博文書館, p.156 참조). 한편 今西龍은 직에 대해 일본에서 職業名을 職人の 稱에 옮길 때 끝에 붙는 ‘シ’와 흡사하며, 후에는 物品의 等級·品質의 칭호에서 일정한 職을 갖는 자의 전체의 稱으로 되었다고 하고 있다(今西龍, 1933 『新羅官位考』 『新羅史研究』 所收 참조). 두 사람이 尺을 卑稱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파악한 것은 고려 및 조선시대의 이른바 ‘稱干稱尺’에서 추론해낸 것이다. 그러나 이 尺과 干이 언제 성립되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사회적으로 卑稱의 성격의 존재로 된 것인지에 대해 언급이 없는 것은 한계라 할 것이다.

되는 양상을 보이게 된다. 丙省과 御龍省에 기술직 관청이 다수 설치되고 거기에 翁·母 등 다양한 職名이 配置되고 있는 것이 이를 반영해 준다. 이러한 과정에서 기술직으로서 尺과 干이 나오게 되었던 것이다.

기술직으로서의 척은 금석문에는 匠尺·文尺·書尺·工尺·斧尺과 같은 다양한 형태로 나온다. 문헌상으로 『삼국사기』 樂志에는 악공을 歌尺·琴尺·舞尺이라 하고 있다. 한편 기술직으로서의 干은 왕실업무를 처리하는 丙省이나 御龍省 산하의 관청 가운데 특정 물품의 생산과 관련한 職名으로 나온다.

이처럼 금석문에는 기술직으로서의 尺이 다양하게 나오지만 이 금석문 자료를 중심으로 한 종래의 연구에서는 주로 官等制의 성립이나 在地세력의 존재양태, 지방통치조직의 형태, 村落의 구조 등과 같은 문제를 해명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척은 거의 논급되지 않았다. 한편 기술직에 관심을 둔 연구에서는 기술직을 관영수공업, 궁중수공업, 사원수공업 등으로 나누어 정리하면서 척에 대해 간략히 언급하기도 하였고,³⁾ 또 匠人의 기능을 측량·설계 기술자, 성곽축조 기술자, 문서(작업일지)기록자로 파악하는 가운데서 척이 언급되기도 하였다.⁴⁾ 그러나 대개는 수공업체계가 관직체계를 규명하는 과정에서 단편적으로 논급한 것이어서 그 성격이 분명히 밝혀지지 못하였다. 그 결과 기술직이 처음에는 ‘人’으로 표기되다가 점차 ‘尺’으로 바뀌어지게 된 현상을 간과해 버리거나 소홀히 다루고 말았다.

어느 시대 어느 사회이고 간에 기술직은 그 사회를 운영하고 유지하는데 중요한 몫을 담당하는 한 부분이다. 신라에서도 그러하였음은 물론이다. 신라시대에 이 기술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尺이나 干이다. 따라서 기술직으로서의 尺과 干이 언제 어떻게 성립되었고 그들의 사회

3) 박남수, 1996 『新羅手工業史』, 신서원 참조.

4) 이수훈, 1995 『신라 중고기 촌락 지배 연구』, 부산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191~214 참조.

적 지위가 어떠하며 또 그 지위가 어떻게 변화되어 갔는가를 살피는 것은 신라 사회의 구조와 그 변화를 이해하는데 필요하다고 본다. 본고는 이러한 관점에서 마련되었다.

이를 위해 먼저 금석문과 문헌자료에서 尺과 干의 용례를 종합한 후 技術職으로서의 尺이 관직체계 속에 편제되는 것과 관직체계 밖에 남게 되는 분화과정을 정리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금석문에서 기술직을 나타내는 용어가 ‘人’에서 ‘尺’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정리함으로써 기술직으로서 尺이 사용된 시기를 추정해 보기로 한다. 다음에는 7세기 말 이후 기술직으로서의 尺이 사회적으로 범주화되면서 이들의 사회적 지위가 점차 하락되어 가는 모습을 정리한 후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게 된 배경을 규명해 보기로 한다.

II. 技術職名으로서의 尺

1. 尺의 用例

1) 금석문에 보이는 尺

신라 중고기에 만들어진 금석문에는 기술직명으로서의 尺이 다수 보인다. 금석문은 당대의 사실을 전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료적 가치가 크다. 이제 금석문에 나오는 기술직명으로서의 尺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⁵⁾

무술오작비(578?: 진지왕 3)

3행 : 大工尺 仇利支村 壹利力兮 貴干支

5) 신라 금석문의 판독문은 본고에서는 한국고대사회연구소편, 1992 『역주 한국 고대금석문Ⅱ(신라1·가야편)』에 실린 것을 사용하였다.

- 4행 : 道尺 辰△生之△△村
- 8행 : 工夫
- 9행 : 文作人 壹利兮 一尺

남산신성비 제1비(591: 진평왕 13)

- 5행 : 匠尺 阿良村 末丁次 干
- 6행 : 文尺 △文知 阿尺
- 6행 : 城使上 阿良 沒奈生
- 7행 : 文尺 竹生次 一伐
- 7행 : 面捉上 珎△△
- 8행 : 門捉上 知禩?次添?
- 8행 : 捉上 首尔次
- 8행 : 小石捉上 辰△次

남산신성비 제2비(591: 진평왕 13)

- 6~7행 : 匠尺 沙戶城 可沙里知 上干
- 7행 : 文尺 美叱△之 一伐
- 8행 : 作上人 所平之 上干
- 8행 : 工尺 可尸△之 一伐
- 8~9행 : 文尺 得毛也之 一尺
- 9~10행 : 石捉人 首叱兮之 一尺
- 10행 : △石捉人 乙安尔之 彼日
- 10~11행 : 小石捉人 丁利之 彼日

남산신성비 제3비(591: 진평왕 13)

- 4행 : 文尺 仇△△小舍
- 4행 : 作上人 只冬 大舍
- 5행 : 文尺 久匠△
- 5행 : 面石捉上人
- 6행 : △石捉上人 △何次 大鳥
- 6행 : 小石捉上人 △△ 小鳥

남산신성비 제4마(591: 진평왕 13)

6행 : 匠尺

8행 : 書尺

9행 : 石捉上人

10행 : 小石捉上人

영천청재비 정월명(798: 원성왕 14)

6~7행: 都合斧尺百卅六

7행: 法功夫 四千百四十

이 자료들이 보여주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尺이 붙은 기술직명으로는 大工尺·工尺·道尺·匠尺·文尺·書尺·斧尺 등이 있었다. 둘째 기술직으로서의 尺은 戊戌塙作碑부터 보이며, 신라 하대인 원성왕 14년(798)까지도 사용되었다. 셋째 尺의 用例가 가장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은 南山新城碑이다. 넷째 尺이 붙은 기술직을 맡은 자들 가운데 왕경인은 京位를, 지방민은 外位를 소지하였다.

위의 자료에서 보듯이 기술직으로서의 尺이 최초로 보이는 것은 大工尺과 道尺이 나오는 무술오작비이다. 무술오작비의 건립 시기는 578(진지왕 3)으로 추정되고 있으므로⁶⁾ 늦어도 578년에는 尺이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大工尺은 工尺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工尺은 大工尺 보다 먼저 성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공척과 공척과의 관계에서 본다면 척의 사용은 578년보다 빠를 가능성이 크다. 그렇지만 후술하는 바와 같이 진흥왕대까지는 기술직명에 ‘人’이 사용되고 있었으므로 기술직으로서의 尺이 최초로 사용된 시기는 진지왕(576~579)대 이전으로 올라가지는 않을 것이다.

6) 임창순, 1958 「대구에서 신발견된 무술오작비 소고」 『사학연구』 1 및 한국고대사학회연구소편, 1992 앞의 책 참조

2) 『삼국사기』 樂志에 보이는 尺

금석문 외에 『삼국사기』에도 기술직으로서의 척이 나오는데 주로 樂志와 職官志에 보인다. 먼저 악지에 나오는 척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但古記云 政明王九年 幸新村 設酺奏樂 箏舞 監六人 箏尺二人 舞尺一人 下辛熱舞 監四人 琴尺一人 舞尺二人 歌尺三人 思內舞 監三人 琴尺一人 舞尺二人 歌尺二人 韓岐舞 監三人 金尺一人 舞尺二人 上辛熱舞 監三人 琴尺一人 舞尺二人 歌尺二人 小京舞 監三人 琴尺一人 舞尺一人 歌尺三人 美知舞 監四人 琴尺一人 舞尺二人 哀莊王八年 奏樂 始奏思內琴 舞尺四人 青衣 琴尺一人 赤衣 歌尺五人 彩衣繡扇並金鍔帶 次奏碓琴舞 舞尺赤衣 琴尺青衣 如此而已 則不可言其詳也 羅時 樂工皆謂之尺 (『삼국사기』 권제32, 잡지 제1 樂)

이 기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들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歌尺은 노래를 잘 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고, 舞尺은 춤을 잘 추는 사람을, 琴尺은 거문고를 잘 타는 사람을, 箏尺은 피리를 잘 부는 사람을 지칭한다는 것이다. 둘째 신라시대에는 음악을 전문으로 하는 기능자 즉 樂工을 尺으로 불렀다는 점이다. 셋째 이 尺은 애장왕 8년(807)년에도 음악을 전문으로 하는 자에게 사용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신라에서는 음악에 전문적인 技藝를 가진 자를 ‘○尺’이라 하였고, 이러한 尺의 사용은 하대까지 계속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기술직명으로서의 척이 음악에 사용된 시기는 언제일까. 이에 대해 『삼국사기』에는 明記가 없지만 于勒과 관련하여 그 시기를 추론해 보고자 한다. 대가야 출신인 于勒은 진흥왕 12년(551) 이전의 어느 시기에 신라로 망명하였고(7) 진흥왕 13년(552)에 왕명에 의해 대나마 法知(8)

7) 이는 『삼국사기』 권제4 신라본기 제4 진흥왕 12년조에 “三月 王巡狩次娘城 聞于勒及其弟子尼文知音樂 特喚之...”한 기사에서 짐작할 수 있다.

8) 『삼국사기』 권제32, 잡지 제1 악지 가야금조에는 注知로 나온다.

에게는 歌를, 階古에게는 琴을, 大舍인 萬德에는 舞를 가르쳤다고 한다.⁹⁾ 이는 우륵이 琴·歌·舞 모두에 능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처럼 琴·歌·舞에 능하였던 우륵은 대가야의 嘉實王으로부터 樂師로 불리었다.¹⁰⁾ 악사라는 용어는 雅化된 용어이기 때문에 후대의 표현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시기에 대가야는 荷知王이 南齊에 사신을 보내 輔國將軍本國王之 책봉을 받고 있고¹¹⁾ 또 가야금의 제작도 남제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¹²⁾ 이러한 사실에서 미루어 볼 때 대가야 당시에 음악에 뛰어난 자를 樂師라고 호칭하였을 가능성은 크다고 본다.

그러면 우륵이 신라로 망명한 이후 그에게 어떤 칭호가 주어졌을까. 이를 분명히 밝힐 수 있는 자료는 없지만 眞興왕 29년(568)에 세워진 磨雲嶺碑와 黃草嶺碑에 藥師라는 직명이 보이는 것과 연관시켜 볼 때 그는 樂師로 불리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지 않으면 후술하는 바와 같이 眞興왕대까지 직명에 ‘人’이 붙는 것이 보통이므로 ‘樂人’으로 불리었을 지도 모르겠다. 어느 쪽이든 간에 眞興왕대까지는 음악을 전문으로 하는 職이나 사람을 ‘○尺’으로 부르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이점은 그에게서 琴과 歌와 舞를 배워 각각 대성한 法知 등 3사람이 ‘○尺’으로 불리지 않았다고 하는 데서도 입증될 것이다.

이러한 사실과 앞서 언급한 것처럼 6세기말 7세기에 들어오면 기술직에 尺이 붙어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 등을 종합해 보면 음악을 전문으로 하는 직을 ‘○尺’이라 하기 시작한 것은 7세기 이후이고 그 하한은 政明王=神文王 9년(689)이라고 할 수 있겠다.

9) 『삼국사기』 권제4, 신라본기 제4 眞興왕 13년조

10) 『삼국사기』 권제32, 잡지 제1 악지 가야금조

11) 『남제서』 권58, 열전 제39 동남이전 가라국전

12) 정구복 외, 1996 『역주 삼국사기4 - 주석편(하) -』 주239 참조.

3) 官職·軍官 명칭에 사용된 尺

『삼국사기』 직관지에 의하면 尺이라는 용어는 官職과 軍官 명칭에도 사용되고 있다. 먼저 관직 명칭에 사용된 사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典邑署 景德王改爲典京府…小司邑九人 位與弩舍知同 史十六人 木尺七十人 (『삼국사기』 권제38, 잡지 제7 직관 상)

古官家典 幢(…云稽知)四人 鉤尺六人 水主六人 禾主六人 (『삼국사기』 권제38, 잡지 제7 직관 상)

村徒典 文武王 十年置 于一人 宮翁一人 大尺一人 史二人 (『삼국사기』 권제39, 잡지 제8 직관 중)

典邑署는 왕경을 관리하는 관청인데 이에 배속된 木尺은 그 명칭에서 미루어 볼 때 나무를 다루는 전문기술자로 생각된다. 古官家典의은 그 업무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배속된 鉤尺은 갈코랑이를 잘 다루는 기술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닐까 한다. 村徒典은 그 명칭에서 미루어 볼 때 왕실 直屬村의 업무를 관장하지 않았을까 한다. 여기에 두어진 大尺은 기술직이 분명하나 업무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다. 다만 대척이 늦어도 문무왕 10년에 사용되었으므로 이 기사는 기술직에 尺이 사용된 시기의 하한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다음 군관에 사용된 척의 사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火尺 大幢十五人 貴幢十人 漢山停十人 牛首停十人 河西停十人 完山停十人…共三百史十二人 位與少監同 (『삼국사기』 권제40, 잡지 제9 직관 하)

法幢火尺 軍師幢三十人 師子衿幢二十人 京餘甲幢十五人 外餘甲幢百二人 弩幢四十五人 雲梯幢十一人 衝幢十八人 石投幢十八人 共二百五十九人 (『삼국사기』 권제40, 잡지 제9 직관 하)

먼저 火尺¹³⁾의 경우 ‘火’는 伐·弗·發·夫里 등과 같이 촌락의 의미를 갖는 것이고 尺은 하급무관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 ‘촌락의 하급 무관’으로 파악하는 견해가 있다.¹⁴⁾ 그러나 火尺의 火는 ‘火箭’을, 尺은 이를 만들거나 다루는 기술적으로 볼 수 있다면 火尺은 火箭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하급기술무관직으로 파악할 수 있겠다. 이 火尺은 6停·9 摺幢·鬪衿幢·10停·5州摺 등 중요 부대에 설치되었는데 그 수는 모두 342명이었다.¹⁵⁾

다음 범당화척은 軍師幢, 師子衿幢과 京餘甲幢·外餘甲幢 등 여갑당 계열의 부대와 弩幢·雲梯幢·衝幢·石投幢이라고 하는 四設幢에 배속된 군관으로서 총 259명이었다. 이 가운데 外餘甲幢에 배속된 수가 약 40%를 차지하고 四設幢에 배속된 수가 35%에 해당된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火尺이 火箭을 전문으로 다루거나 만드는 기술직이라고 하면 法幢火尺도 餘甲幢이나 四設幢 특수 부대에 배속된 火箭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하급군관이 아니었을까 한다.

2. 尺의 性格

필자는 앞에서 금석문과 『삼국사기』에 나오는 기술직과 관련되는 척의 자료들을 정리해 보았다. 금석문에 나오는 匠尺, 文尺, 工尺, 道尺 등이나 樂志에 나오는 歌尺, 舞尺, 琴尺 등은 모두 전문기술직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따라서 척은 이 시기에 와서 전문기술직을 가리키는 용어로

13) 朝鮮史學會本에서는 大尺으로 판독하고 있다.

14) 井上秀雄, 1974 『新羅史基礎研究』, p.165

15) 척이 붙은 군관명으로는 이외에 大尺이 있으나(『삼국사기』 권제40, 잡지 제9 직관 하에 ‘大尺花與少監同’라 한 기사 참조), 將軍 이하 三千卒에 이르는 군관명칭 항목에는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이 ‘大’자의 모양은 ‘火’와 비슷하고 또 화척과 대척의 관등도 少監과 같은 것으로 나온다. 이에 근거하여 이 大尺은 火尺의 오각으로 보고자 한다.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¹⁶⁾

그러나 척이라는 용어는 전문기술직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의미로도 사용되고 있다. 귀족관료들의 상하 서열을 나타내는 관등에 척이 사용된 것이 그 예가 된다. 이제 척이 붙은 관등 자료를 摘記하면 다음과 같다.

- 儒理王九年 置十七等…二曰伊尺澹(或云伊澹)…六曰阿澹 (或云阿尺干 或云阿槩) (『삼국사기』 권제38, 잡지 제7 직관 상)
- 一尺干 沙尺干 及尺干(장녕진흥왕척경비)
- 阿尺干(무술오작비)
- 文武王十四年 以六徒眞骨出居於五京九州 別稱官名 其位視京位 嶽干視 一吉澹 述干視沙澹 … 上干視大舍 干視舍知 一伐視吉次 彼日視小 烏 阿尺視先沮知 (『삼국사기』 권제40, 잡지 제9 직관 하 외위조)
- 文武王十三年 以百濟來人授內外官 其位次視在本國官銜 京官大奈麻本 達率 …大烏本將德 外官貴干本達率 選干本恩率 上干本德率 干本扞 率 一伐本奈率 一尺本將德 (『삼국사기』 권제40, 잡지 제7 직관 하 백제인위조)
- 一尺 阿尺(울진봉평신라비)

위의 기사들은 척이 경위와 외위 모두에 사용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금석문에 의하면 척은 외위에 먼저 사용되었고 진흥왕대에 와서야 경위에도 사용되기 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때의 尺은 관등 명으로서의 척이라고 하겠다. 관등명으로서의 尺은 초기국가 단계에서부터 사용된 것이어서 그 연원은 오래라고 할 수 있다. 『삼국유사』 탈해왕조에 보이는 海尺¹⁷⁾의 존재는 이를 반영해 주는 것이라 하겠다.

16) 이우태는 무술오작비와 남산신성비에 나오는 시이나 尺이 붙은 직명을 임시직 명으로 보기도 한다(이우태, 1991 『신라 중고기의 지방세력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120). 그렇다고 하더라도 尺이 기술직을 나타내는 용어인 것은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尺은 외위 뿐만 아니라 경위에도 사용되기 시작한지 얼마 후인 무술오작비부터 기술직명으로도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척이 일차적으로 관등명칭으로서의 척과 기술직명으로서의 척으로 분화된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시기는 진흥왕 말에서 진지왕 초로 생각된다.

이후 기술직을 나타내는 용어로서의 척은 점차 일반화되었고, 그에 따라 분화의 길을 걷게 되었다. 이 분화는 신라가 국가체제를 갖추어 가는 것과 일정한 연계성을 가졌다. 즉 신라가 통일 이후 중앙 및 지방관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尺 가운데 일부는 중앙의 관직체계 속에 편제되어 간 것이다. 전읍서의 木尺, 고관가전의 鈎尺, 촌도전의 大尺, 군관으로서의 火尺이 그것이다. 이들은 일반행정 관서나 공정 업무를 관장하는 관청의 말단기술관직이거나 최하위의 군관직이었는데¹⁸⁾ 총괄적으로 技術官職이라고 할 수 있겠다.¹⁹⁾

그러나 기술직으로서의 척이 분화되어 일부가 말단 기술관직으로 편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수는 얼마 되지 않는다. 따라서 국가·사회적으로 필요한 물품을 제조·관리하거나 각종 대소의 토목공사에 동원되는 기술직들은 관직체계 밖의 존재들로 보아야 한다. 이들은 기술직으로서의 척으로 불리면서 점차 사회적 집단으로 범주화되어 가게 되었다. 필자는 이들을 '尺'계열 기술직으로 부르려고 한다. 신문왕대에 보이는 歌

17) 『삼국유사』 권제1, 가이 제1 탈해왕조에 “時浦邊有一嫗 名阿珍義先 乃赫居王之海尺之母”라 한 기사 참조.

18) 井上秀雄, 1974 위의 책, pp.153~154

19) 한편 직관지에는 尺이 붙은 관청이나 군부대도 나온다. 食尺典(『삼국사기』 권제38, 잡지 제7 직관 상), 大匠尺幢·漢山州弓尺·河西州弓尺(『삼국사기』 권제40, 잡지 제9 직관 하)이 그것이다. 식척전은 음료를 담당한 것 같고, 대장척당은 匠人으로서 이루어진 군부대이고, 두 弓尺은 弓을 전문으로 하는 군부대로 생각된다(노근석, 1992 「신라중고기의 군사조직과 지휘체계」 『한국고대사연구』 6, p. 265). 이렇게 볼 때 척이 붙은 관청이나 군부대도 기술적 성격이 강한 것이라고 하겠다.

尺, 琴尺, 舞尺, 筋尺이라든가 원성왕대에 보이는 斧尺 등이 그 예가 되겠다.

Ⅲ. 技術職名으로서의 干

1. 御龍省 산하 관청에 보이는 干

『삼국사기』 職官 中에는 궁중업무를 관장하는 관청들이 기록되어 있다. 이 관청들은 크게 세 부분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하나는 丙省과 산하 관청이고, 둘째는 御龍省과 산하 관청이며, 셋째는 東宮衛의 御龍省과 산하 관청이다.²⁰⁾ 이러한 관청들에 설치된 관직 가운데는 翁·母 등과 같이 다른 관청에는 보이지 않는 職名도 나온다. 그 중의 하나가 干이다. 『삼국사기』 권제39, 잡지 제8 직관 중에서 干이 배속된 관청을 摘記하면 다음과 같다.

村徒典 文武王十年置 干一人 宮翁一人 大尺一人 史二人
 麻典 景德王十八年 改爲織紡局 後復古 干一人 史八人 從舍知四人
 肉典 景德王改爲尙膳局 後復古 干二人
 滓典 干一人 史四人
 席典 景德王改爲奉座局 後復古 干一人 史二人
 机櫬典 景德王改爲机盤局 後復古 干一人 史六人
 楊典 景德王改爲司篋局 後復古 干一人 史六人
 瓦器典 景德王改爲陶登局 後復古 干一人 史六人

이 중 村徒典은 내성 산하의 관청이고 나머지는 어룡성 산하 관청이

20) 궁중업무를 관장하는 여러 관청에 대한 정리는 三池賢一, 1971·1972 「新羅 丙政官制考(上·下)」, 『朝鮮학보』 61·62 및 이인철, 1993 『新羅政治制度史研究』, 一志社 제1권 제2장 「신라 내정관부의 조직과 운영」 참조.

다. 村徒典은 그 명칭에서 미루어 볼 때 왕실 直屬村의 업무를 관장하지 않았을까 한다. 한편 어룡성 산하에 설치된 麻典 이하 瓦器典에 이르는 7개 관청의 업무를 보면 麻典=織紡局은 織造를, 肉典=尙膳局은 음식물 관계를, 席典=奉座局은 자리 짜는 일을, 机概典=机盤局은 책상이나 탁자를 만드는 일을, 楊典=司篋局은 버들로 그릇을 만드는 일을, 瓦器典=陶登局은 기와를 굽는 일을 맡았던 것으로 보인다.²¹⁾

이 관청들에 두어진 職은 干·史·從舍知이다. 이중 종사지는 麻典에만 보이므로 기본적인 직은 干과 史라 할 수 있다. 그런데 史는 다른 관청에도 거의 다 설치되고 있지만 干은 이 7개 관청과 내성 산하의 村徒典에만 설치되고 있다. 따라서 干은 각급 관청에 설치된 하급실무직으로서의 史와는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干이 설치된 이 관청들의 업무는 모두 특정한 물품을 생산하거나 관리·조달하는 것이다. 따라서 干은 그러한 업무에 정통한 기술직이라고 할 수 있겠다.²²⁾ 이러한 추론이 성립된다고 하면 干은 이제 기술직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게 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기술직으로서의 干의 설치시기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이 村徒典이다. 촌도전은 문무왕 10년(670)에 설치되었으므로 여기에 배치된 干은 늦어도 이 때는 성립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 상한이 언제인지는 단정하기 어렵지만 통일 이후 제도의 정비와 연관시켜 볼 때 문무왕대를 넘지 않을 것이다. 이후 이 干은 御龍省이 설치되면서 그 산하의 여러 관청에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21) 이러한 관청의 업무에 대해서는 박남수, 1996 『新羅手工業史』, 신서원, p. 112 참조. 이 7개의 관청 가운데 楊典과 瓦器典은 왕실에 필요한 물건을 만들거나 생산하여 공급하는 製作生産官府로, 나머지 麻典·肉典·席典·机概典은 궁중에 음식물이나 생필품을 만들어 바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供奉關係官府로 성격을 구분하여 보는 견해도 있다(이인철, 1993 앞의 책, pp.74~79).

22) 이 干을 기술직으로 간략히 언급한 것은 후보돈, 1998 『신라지방통치체제의 정비과정과 촌락』, 신서원, p.169의 주90 참조.

干이 배속된 관청들 가운데 麻典은 경덕왕 18년(759)에 織紡局으로 개칭되었다. 경덕왕 18년에는 중앙의 중요 관청과 관직의 명칭이 개칭된 시기이기도 하다.²³⁾ 따라서 麻典 이외의 관청들의 명칭 개정 시기도 비록 명기는 없지만 경덕왕 18년으로 보아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이처럼 기술직으로서의 干은 처음에는 宮中 업무를 관할하는 하급 관청에 설치되었다. 그러나 이 干은 점차 宮中을 벗어나 보다 일반적으로 사용되기에 이르렀다. 이를 추론하게 해주는 것이 李齊賢의 『櫟翁稗說』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다.

竊謂新羅之時 其君稱麻立干(麻立方言概也 新羅之初 君臣聚會 立概爲其君位 因號其君曰麻立干 謂當概者也 干則新羅俗相尊之辭) 其臣稱阿干·大阿干 至於鄉里之民例以干 連其名而呼之 蓋相尊之辭也 阿干或作阿餐閼餐 以干餐餐三字 其聲相近也 (『櫟翁稗說』 전집 권1)

이 기사에서 다음의 몇 가지 사실을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干은 신라에서 相尊의 말이라는 것이다. 둘째, 간은 阿干·大阿干처럼 신하들의 관동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셋째, 干·餐·餐 세 글자는 그 소리가 相近하여 같은 것이라는 사실이다. 넷째, ‘至於鄉里之民 例以干 連其名而呼之’라 한 것에서 보듯이 干이 鄉里의 民의 이름에 붙여져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중에서 주목되는 것이 네 번째의 경우이다.

鄉里之民이 그 이름에 干을 붙여서 불렀다고 할 때의 ‘干’은 관료들의 상하 서열을 나타내는 관동으로서의 干이 아니다. 왜냐하면 鄉里之民들은 관료가 아니어서 干·餐·餐이 붙은 관동명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하여 이들을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때문에 필자는 이 때의 干은 기술직으로서의 干으로 추정해 둔다. 그렇다고 하면 그 시기는 언제인지 분명하지 않지만 기술

23) 『삼국사기』 권제9, 신라본기 제9 경덕왕 18년조

직으로서의 干은 民들에게까지 그 사용이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2. 內省 산하 '官員數關' 관청 검토

한편 『삼국사기』 권제39, 잡지 제8 職官志 中에는 內省 산하의 관청 가운데 특수한 관청으로서 倭典 이하 14개의 관청이 나온다. 이 관청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倭典 已下十四官員數關
- 錦典 景德王改爲織錦房 後復故
- 鐵鑰典 景德王改爲築冶房 後復故
- 寺典
- 漆典 景德王改爲飾器房 後復故
- 毛典 景德王改爲聚毳房 後復故
- 皮典 景德王改爲鞞人房 後復故
- 鞞典
- 皮打典 景德王改爲鞞工房 後復故
- 磨典 景德王改爲梓人房 後復故
- 輅典
- 靴典
- 打典
- 麻履典

이 14관청은 '已下十四官員數關'이라 한 것에서 보듯이 관직과 관원 수를 알 수 없다. 그나마 연혁만이라도 알 수 있는 것은 錦典 등 7개의 관청에 지나지 않는다. 이 관청들의 연혁을 보면 경덕왕대에 와서 錦典은 織錦房으로, 鐵鑰典은 築冶房으로, 漆典은 飾器房으로, 毛典은 聚毳房으로, 皮典은 鞞人房으로, 皮打典은 鞞工房으로, 磨典은 梓人房으로 개칭되었다. 개칭 시기에 대해서는 明記가 없지만 御龍省 산하 관청의

명칭 개칭이 경덕왕 18년(759)에 이루어진 것에서 미루어 볼 때 이들 관청의 명칭도 경덕왕 18년에 개칭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이 14개의 관청 가운데 倭典²⁴⁾은 倭使를 접대하는 업무를 관장한 것 같고, 寺典은 왕실과 관련한 사찰 업무를 관장한 것 같다. 錦典=織錦房은 비단 직조 업무를, 鐵鑪典=築冶房은 솥 만드는 업무를, 漆典=飾器房은 그릇에 옷칠을 하는 업무를, 毛典=聚毳房은 모직물 직조 업무를, 皮典=鞞人房은 가죽 무두질하는 업무를, 皮打典=鞞工房은 가죽 다루는 일을, 鞞典과 靴典은 신과 장화를 만드는 업무를, 麻履典은草履를 만드는 업무를 관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²⁵⁾

이 14개의 관청의 직무에서 볼 때 倭典과 寺典을 제외한 12개 관청은 수공업과 관련되는 관청으로서 그 성격은 어룡성 산하의 7개 관청과 비슷하다. 양자의 성격이 비슷하다고 하면 7개 관청의 조직을 통해 12개 관청에 빠진 官員 문제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앞에서 언급한 바이지만 어룡성 산하의 수공업 담당 7개의 관청에는 기본적으로 干과 史가 두어졌다. 그리고 阿尼典과 綺典에는 母만 두어지고 있다. 母만 두어진 관청은 여성과 관련된 관청일 것이다.

이러한 이해를 내성 산하의 12개 관청에 적용시켜 보기로 한다. 먼저 錦典=織錦房은 그 관장 업무에서 미루어 볼 때 綺典=別錦房에 대응된다. 그렇다고 하면 錦典=織錦房은 여성들로 이루어진 관청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는 母가 설치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錦典을 제외한 나머지 11개의 관청은 수공업적 성격의 관청으로서 여성과는 관련이 없어 보인다. 따라서 이들 관청에는 기본적으로 干과 史가 두어지지 않았을까 한다. 이 干은 전문기술직으로서의 干임은 물론이다.

24) 내성 산하에 설치된 왜전에 대해서는 浜田耕策, 1990 「新羅の迎賓機構 - 關門と領客府 - 」 『古代文化』 42 - 8 및 李成市, 1982 「正倉院寶物毳貼布記を通して見た八世紀の日羅關係」 『朝鮮史研究會會報』 67 참조.

25) 이러한 관청의 업무에 대해서는 박남수, 1996 앞의 책, pp.108~112 참조.

IV. 技術職名의 표기 변화

1. '人'에서 '尺'으로

필자는 앞에서 尺이 기술직을 나타내는 용어로 사용되었다는 것과 그 시기는 戊戌塢作碑부터라고 보았다. 그러면 그 이전에 기술직은 어떻게 표현되었을까. 이를 추론하기 위해 무술오작비보다 먼저 만들어진 금석문에서 기술직과 관련된 것을 적기하면 다음과 같다.

울진봉평신라비(524: 법흥왕 11)

9행: 書人 牟珍 斯利公 吉之智 沙喙部 若文 吉之智

9행: 新人 喙部 述刀 小烏帝智 沙喙部 牟利智 小烏帝智

10행: 立石碑人 喙部 博士

영천청제비 병진명(536: 법흥왕 23)

3행: 作人 七千人

8행: △人 次斯尔利 乃利△主

단양적성비(551?: 진흥왕 12)

20행: 書人 喙部

21행: 石書立人 非今皆里村

명활산성작성비(551?: 진흥왕 12)

3행: 匠人 比智休 彼日

3행: 工人 抽兮 下干支

7행: 衆人 至十一月十五日

9행: 書寫人 源欣利 阿尺

창녕신라진흥왕척경비(561: 진흥왕 22)

26행: 書人 沙喙 導智 大舍

황초령비(568?: 진흥왕 29)

10행: 藥師 沙喙部 篤兒 小△

마운령비(568: 진흥왕 29)

4행: 騶人 沙喙部 爲忠知 大舍

5행: 卣人 喙部 与難 大舍

5행: 藥師 篤支次 小舍

위의 자료들에 의하면 鳳坪碑에서 磨雲嶺碑에 이르기까지 기술직은 書人·新人·立石碑人·石書立人·匠人·工人·書寫人·騶人·卣人 등에서 보듯이 모두 ‘人’으로 표기되고 있다.²⁶⁾ 물론 이러한 직명에 통일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글을 쓰거나 짓는 사람을 書人이라고도 하고 書寫人이라고도 한 것이 그 예가 된다. 그렇지만 이들을 人으로 표기한 것은 공통이다.

그러나 진지왕대에 오게 되면 ‘尺’이라는 용어가 ‘人’과 같이 사용되기 시작한다. 무술오작비에 大工尺·道尺과 함께 文作人이 나오고 있다든가 남산신성비 1·2·3비에 匠尺·文尺과 함께 石捉人·小石捉人·面石捉人·石捉上人·小石捉上人 등이 나오고 있는 것이 이를 보여준다. 이처럼 尺이 사용되면서 ‘人’과 ‘尺’은 병용되었지만 塢作碑의 文作人이 남산신성비에 와서 書尺 또는 文尺으로 표기되고 있는 것에서 보듯이 점차 尺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갔다.

그런데 이 기술직을 표현함에 동일한 職役을 書人·書寫人·書尺·文尺으로, 工人·工尺으로, 匠人·匠尺으로 다양하게 표현한 것은 중고 기에는 아직까지 匠人의 직명이 국가에 의해 일률적으로 규제된 것이 아니라 일이 발생할 때마다 임시로 편성된 결과일 수도 있다.²⁷⁾ 그렇다

28) 藥師의 경우는 예외적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7) 이종욱, 1974 「남산신성비를 통하여 본 신라의 지방통치체제」, 『역사학보』 64,

고 하더라도 무술오작비 이후로 書人이 書尺으로, 匠人이 匠尺으로, 工人이 工尺으로 표기되고 있는 것은 이제 尺이 기술직을 나타내는 용어로서 자리잡기 시작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²⁸⁾

그리하여 통일 이후에는 기술직을 나타내는 용어로서 ‘人’은 더 이상 사용되지 않고 ‘尺’만 사용되게 되었다. 신문왕 9년(689)에 樂工을 筚尺·歌尺·舞尺·琴尺이라 한 것과 원성왕 14년(798)에 세워진 永川菁堤碑貞元修治記에 斧尺만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 및 애장왕 8년(807)에 舞尺과 琴尺이 보이고 있다는 사실 등이 이를 입증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삼국사기』 樂志에서 ‘羅時樂工皆謂之尺’이라고 하였을 때의 ‘羅時’는 통일 이후의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면 진지왕대를 기점으로 하여 기술직에 대한 표기가 ‘人’에서 ‘尺’으로 바뀌게 된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 이에 대해 몇가지로 생각해 보기로 한다. 먼저 고려하여야 할 것은 ‘人’은 價値中立的 표현이라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人’은 특정 집단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추앙받는 사람에서부터 사회의 최하층에 속한 사람에게도 사용되어졌다. 聖人·賢人이라는 표현은 전자의 경우이고 울진봉평신라비에 나오는 奴人은 후자의 경우라 할 수 있다.

이처럼 人자는 가치중립적이므로 人자 앞에 붙는 말에 따라 그 사람의 지위나 성격 및 기능 등이 규정되어졌다. 이렇게 볼 때 기술직명에 ‘人’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기술직이 아직은 사회적으로 範疇化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다.

반면에 尺이라는 용어는 그 자체가 기술직·전문기술자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尺’이 후대에 와서 ~자이(刀尺 : 칼자이), ~재, ~자기, ~재이, ~장이, ~쟁이 등으로 분화되어 표기되지만 모두 특정한 기술을

p.23

28) 박방룡, 1988 「명활산성작성비의 검토」 『미술자료』 41, P.68 참조.

가진 자를 일컫는다고 하는 사실에 의해서도 방증이 되리라 본다.²⁹⁾ 따라서 尺앞에 붙는 말에 따라 기술직은 다양하게 분류되어진다. 글씨 쓰는 자를 書尺, 글을 짓는 자를 文尺, 물품을 만들거나 관리하는 자를 匠尺·工尺 이라 한 것 등이 그것이다.³⁰⁾

이렇게 尺이 기술직을 나타내는 용어로 사용됨으로써 기술직은 이제 사회적으로 분화되어 範疇化되어 가게 되었다. 그 시기는 기술직에 ‘人’이 더 이상 사용되지 않게 된 통일 이후에 와서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6세기말 7세기 전반은 기술직 집단의 사회적 범주화가 이루어진 과도기라고 하겠다.

2. 雁鴨池出土碑의 건립시기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진흥왕대까지는 기술직을 나타내는데 ‘人’이 사용되었지만 진지왕대부터 ‘尺’이 ‘人’과 병용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표기상의 변화와 관련하여 정리해 두어야 할 것의 하나가 안압지에서 출토된 비의 건립 시기 문제이다. 판독된 이 비의 비문은 다음과 같다.³¹⁾

-
- 29) 이 시기에 尺이 어떻게 읽혔는지는 분명히 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 ‘척’이 15세기 국어에서 ‘찰’으로 읽히는 것에서 미루어 볼 때 신라시대에는 *작*으로 읽혔을 가능성이 크다. 『계림유사』에서는 이 *작*에 정확하게 대응하는 접미사로서 ‘作’이 나타난다. ‘倡曰水作, 倡人之子曰故作 樂工曰亦故作’이라 한 것이 그것이다. 그후 이 ‘작’은 ~자이, ~재, ~자기, ~재이, ~장이, ~쟁이 등으로 다양하게 분화되어 표기되지 않았을까 한다. 이에 대해서는 계명대학교 어문학부 한국어문전공 김영일 교수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 30) 중국의 경우 尺은 尺度나 度量衡의 용어로 사용된 것은 분명하다. 그렇지만 이 척이 기술직을 나타내는 용어로 사용되었는지의 여부는 앞으로의 조사에 남겨두기로 한다.
- 31) 본비의 판독문은 한국고대사회연구소 편, 1992 『역주 한국고대금석문Ⅱ(신라 I·가야권)』을 이용하였다.

- 1행 : 村道使喙部
- 2행 : 干支大工尺 侏兮之
- 3행 : △尺 豆婁知 干支
- 4행 : 一伐徒十四步

이 비는 처음에는 남산신성비의 하나로 간주되었다. 그렇지만 근래에 와서 明活山城碑의 하나로서 그 건립시기는 진흥왕 12년(551)으로 추론되고 있다.³²⁾ 이러한 추론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외위의 성립은 지증왕이나 법흥왕대를 넘지 못하며 ‘干’群 경위와 ‘干群’ 외위의 표기는 창녕비가 건립된 561 이전의 어느 시기에 ‘干支’에서 ‘干’으로 변화하였다는 견해를³³⁾ 수용하고 본비에 干支가 보인다는 것은 본비가 창녕비 이전에 건립된 것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파악한 것이다. 둘째는 전국적인 노동력 징발과 관련하여 볼 때 진흥왕 15년(554)에 明活山城을 수축하였다³⁴⁾는 기사가 본비의 내용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셋째는 雁鴨池 護岸石에 이용된 石材들은 화강암, 호온펠스, 안산암, 석영반암, 섬록암 등인데 이중 대부분이 黑雲母花崗巖이고 다음이 호온펠리스인데 이들의 산지는 보문호 부근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견해³⁵⁾에 근거하여 본비가 명확성에 있다가 안압지 호안석으로 활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 등에 근거하여 이 비의 건립시기를 551년 경으로 보고 또의 명칭도 雁鴨池出土明活山城碑로 파악한 것이다. 이외에 명확산성 작성비와 비교할 때 4행의 ‘一伐徒十四步’의 비문 구조는 신미년(551)에

32) 주보돈, 1985 「안압지출토 비편에 대한 일고찰」 『대구사학』 27 및 한국고대사회연구소 편, 1992 앞의 책, pp.50~52의 ‘雁鴨池出土明活山城碑’ 참조.

33) 武田幸男, 1977 「金石文資料からみた新羅官位制」 『江上波夫教授古稀紀念論集(歴史篇)』 참조.

34) 『삼국사기』 권제4, 신라본기 제4 진흥왕 15년조

35) 김봉균, 1978 「지질학적 고찰」 『안압지발굴조사보고서』,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pp.429~431 참조

세워진 것으로 추정되는 明活山城作城碑의 구조와 동일하며 축조 담당 거리가 비슷하고 ‘徒’라는 용어가 동시에 사용된 것이 이 두 비 뿐이라고 하는 점 등을 들어 명활산성비의 하나로 보는 견해도³⁶⁾ 있다.

이 비의 건립 연대를 551년으로 보면 大工尺과 같은 척의 사용시기는 무술오작비보다 앞서게 된다. 이는 앞에서 보아온 진흥왕대까지 기술적에 ‘人’만 사용되고 있는 사실과 충돌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자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측면에서 본비의 건립 시기를 재검토해 보고자 한다.

첫째 본 비문에 나오는 직명은 道使, 大工尺, △尺³⁷⁾ 등이다. 이 중 大工尺·△尺은 무술오작비에 나오는 大工尺·道尺과 대응된다. 이는 본비의 건립시기를 무술오작비와 연관시켜 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둘째 본비에는 2행과 3행에 干支가 보인다. 2행의 경우는 상부가 깨어져버렸기 때문에 경위인지 외인지를 알 수 없지만 3행의 ‘干支’는 관등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이 비석은 ‘村道使’에 보이는 ‘村’의 존재와 道使는 城·村에 파견된 지방관이며 城·村民을 동원하고 감독하는 책임을 진 지방관이라는 사실 등에서 미루어 볼 때 지방민과 관련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때문에 본비에 보이는 △尺의 직명을 가진 豆婁知는 지방민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그가 지닌 干支는 외위가 되는 것이다.³⁸⁾

外位는 11등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干支는 7등급에 속한다. 7등급에 속하는 외위의 표기는 524년에 세워진 울진봉평신라비와 551년 경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明活山城作城碑 및 551년 이전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되는 丹陽赤城碑에는 下干支로 나온다. 明活山城作城碑와

36) 만덕식, 1992 「신라의 경주 명활성비에 관한 고찰」 『東方學志』 74, pp.119~121

37) 신라 금석문의 표기는 대개 직명 - 인명 - 관등명의 순이다. 본비의 경우도 이러한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尺은 직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38) 후보돈, 1985 앞의 논문, p.4

赤城碑의 下干支와 본비의 干支는 모두 외위 7등급이지만 표기하는 방식은 다르다.

그런데 『삼국사기』 직관지 외위조에서 ‘干’계열의 관등을 보면 上干 다음에 干이 나온다. ‘上干’에 대응되는 표기라면 ‘下干’이 되어야 할 터인데 ‘干’으로만 표기되어 있는 것은 ‘下干’에서 ‘下’가 생략된 결과일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본비의 ‘干支’는 명활산성작성비의 ‘下干支’에서 ‘下’가 생략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따라서 본비는 명활산성작성비보다 늦게 만들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셋째 관등의 표기에서 561년에 세워진 창녕비에는 ‘干群’ 경위뿐만 아니라 ‘干群’ 외위도 干만 사용되고 있다. 이를 근거로 하여 종래에는 ‘干’群 경위의 표기 방식이 561년을 경계로 하여 ‘干支’에서 ‘干’으로 변화하였다고 보아왔다. 그런데 창녕비보다 늦게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무술오작비(578)에는 京位로는 阿尺干이, 외위로는 貴干支가 나온다. 阿尺干은 창녕비와 일치하나 貴干支는 창녕비의 외위 표기 방식과 다르다. 따라서 561년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후에는 경위와 외위에 ‘干支’가 사용되지 않았다는 종래의 주장은 성립될 수 없다. 이렇게 볼 때 본비에 보이는 외위로서의 干支는 塢作碑에 貴干支가 사용된 것과 궤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넷째 남산신성비에는 ‘干’계열의 외위로는 上干(제1비·제2비·제4비·제5비), 貴干(제2비), 撰干(제2비), 干(제1비) 등이 나오지만 ‘干支’라는 표기는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남산신성비 단계에 와서는 ‘干’계열의 외위의 표기 방식이 종래의 ‘干支’에서 ‘支’가 생략되고 ‘干’만 사용된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남산신성비의 건립시기는 본비보다 늦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금석문 상에서는 외위 7등급의 표기는 下干支(524년 전후) → 干支(578년 경) → 干(591년)으로 변화된 것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다.

다섯째 본비 4행의 ‘一伐徒十四步’에 보이는 ‘徒’의 用例는 명활산성 작성비에도 나온다.³⁹⁾ 그러므로 본비의 건립연대를 명활산성작성비와 연결시켜 볼 수도 있다. 그런데 ‘徒’라는 용어는 금석문에서는 두 비에만 나오지만 문헌상으로는 진덕왕 5년(651)에 설치된 侍衛府의 ‘三徒’,⁴⁰⁾ 문무왕 10년(670)에 설치된 村徒典,⁴¹⁾ 문무왕 14년의 외위 관련 기사에 보이는 ‘六徒眞骨’⁴²⁾ 및 설치연대가 불명한 直徒典⁴³⁾과 같은 관칭 명칭에도 보인다. 특히 시위부의 三徒는 명활산성작성비나 본비에 보이는 ‘徒’와 같은 의미라 할 수 있다. 따라서 ‘集團’·‘團體’·‘무리’로서의 ‘徒’는 7세기 중반에도 사용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비에 ‘徒’가 보인다고 하여 이를 명활산성작성비에만 연결시킬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본 비는 561년의 창녕비보다는 늦게 건립되었고 591년의 南山新城碑보다는 먼저 건립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필자는 안압지에서 출토된 碑는 진지왕(576~579) 대에 만들어진 것으로서 그 시기는 무술오작비가 만들어진 시기(578)와 같거나 그에서 멀지 않은 시기로 파악하고자 하는 바이다.⁴⁴⁾ 그렇다고 하면 안압지출토 비는 기술적으로서의 尺의 사용이 무술오작비부터라는 것을 뒷받침해 또 하나의 자료가 된다고 하겠다.

39) 명활산성작성비에 대해서는 박방룡, 1988 「명활산성작성비의 검토」, 『미술자료』 41 참조.

40) 『삼국사기』 권제40, 잡지 제9 직관 하의 “侍衛府有三徒 眞德王五年置”라는 기사 참조.

41) 『삼국사기』 권제39, 잡지 제8 직관 중의 “村徒典 文武王十年置” 참조.

42) 『삼국사기』 권제40, 잡지 제9 직관 하 외위조

43) 『삼국사기』 권제38, 잡지 제7 직관 상

44) 박남수도 1996 앞의 책, p.143 주20에서 본비의 건립시기를 무술오작비와 비슷한 시기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논급하였다.

V. 尺의 사회적 지위 하락과 그 배경

1. 尺의 사회적 지위 하락

필자는 앞에서 기술직을 나타내는 용어로서의 ‘尺’이 6세기 후반부터 보이기 시작하면서 일정기간 동안 ‘人’과 더불어 사용되다가 7세기 후반에는 보편적으로 사용되게 된 것으로 파악하였다. 尺이 기술직을 나타내는 용어로서 일반화되게 되면서 척으로 표현되는 기술직의 일부는 관직체계 속에 수렴되었지만 대다수는 관직체계 밖에 존재하면서 점차 하나의 사회집단으로 範疇化되어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이들의 사회적 지위는 점차 하락되어 갔다. 여기에서는 통일 이후에 와서 ‘척계열 기술직의 사회적 지위가 하락한 모습을 몇가지로 정리해 보기로 한다.

첫째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소수의 기술관직 외에 대다수의 ‘척계열 기술직은 관직체계 내에 편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신문왕 9년(689)에 왕 앞에서 연주를 한 歌尺·筋尺·琴尺·舞尺은 『삼국사기』 직관지에 보이지 않고, 원성왕 14년(798)에 만들어진 永川舊堤碑貞元修治記에 나오는 斧尺도 직관지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현상은 이들이 관직체계 내에 편제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소수의 척만이 관직체계 내에 편제되고 나머지는 모두 관직체계 밖에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은 이들의 사회적 지위가 그만큼 저하된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두 번째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의 사항과 연계하여 볼 때 기술직인 대다수의 척에 상당 관등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歌尺·舞尺 등과 청제비정원수치기의 斧尺에도 관등이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것이 그것이다. 이점은 친흥왕대에 음악 전문가인 階古·法知 등이 大奈麻·大舍 등의 경위 관등을 가졌다는 것과 무술오작비에서 남산신성비에 이르기까지 중고기의 금석문에서 ‘尺’이나 ‘人’으로 표기된 기술

직의 대다수가 경위든 외위든 관등을 지니고 있었다는 사실과 대조적이다.⁴⁵⁾ 상당 관등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이들이 관직체계 속에 편제되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고 하면 이 또한 ‘척’계열 기술직의 사회적 지위의 하락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것이다.

세 번째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冶匠을 신분적으로 寒微한 자로 보는 사회적 인식이 널리 퍼져 있었다는 점이다. 쇠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冶匠의 사회적 지위는 초기국가 단계에서는 결코 낮지 않았다. 이를 짐작하게 하는 것이 『삼국유사』 脫解王條의 다음 기사이다.

望城中可居之地 見一峰如三日月 勢可久之地 乃下尋之 卽瓠公宅也 乃設詭計 潛埋礪炭於其側 詰朝至門云 此是吾祖代家居 瓠公云否 爭訟不決 乃告于官 官曰 以何驗是汝家 童曰 我本冶匠 乍出인鄉 而人取居之 請掘地檢看 從之 果得礪炭 乃取而居焉 (『삼국유사』 권제1, 기이 제2 탈해왕조)

이 기사에서 脫解가 스스로를 冶匠이라고 한 것은 冶匠이 가지는 사회적 지위가 만만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과 새 시대의 주인공의 구실을 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⁴⁶⁾ 물론 이 기사는 서기 57년경의 사실이어서 이를 근거로 후대에도 야장의 사회적 지위가 높았다고 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나 비록 고구려의 경우이지만 泉男生墓地銘에 할아버지가 쇠를 잘 다룬 것을 자랑으로 여겼다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 것은 고구려 후기에도 야장의 지위가 어느 정도 유지되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이러한 사

45) 외위의 경우 문무왕 14년(674)에 京位에 통합되어 소멸되었기 때문에 기술직에 외위가 표기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하면 경위라도 표기되어야 할 터인데 현재의 자료로서는 그러한 예는 찾아지지 않는다.

46) 김철준, 1990 「삼국시대의 예속과 유교사상」 『한국고대사학회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pp.300-~301

실에서 미루어 볼 때 신라의 야장도 중고기때까지는 일정하게 대우를 받지 않았을까 한다.⁴⁷⁾ 이러한 대우는 아마도 통일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각종 무기를 만들어야 하는 사회적 상황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7세기 이후에 들어서게 되면서 야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종래와는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이 『삼국사기』 强首열전의 다음 기사이다.

遂就師讀孝經曲禮爾雅文選 所聞雖淺近 而所得愈高遠 魁然爲一時之傑 遂入仕歷官 爲時聞人 强首嘗與釜谷治家之女野合 情好頗篤 及年二十歲 父母媒邑中之女有容行者 將妻之 强首辭不可以再娶 父怒曰 爾有時名 國人無不知 而以微者爲偶 不亦可恥乎 (『삼국사기』 권제46, 열전 제6 강수전)

이 기사에 보이는 釜谷 治家=대장쟁이 집은 職名으로 표기하자면 冶匠·冶尺이라 할 수 있다. 현재의 연구에 의하면 强首의 가문은 六頭品 출신으로 이해되고 있다.⁴⁸⁾ 육두품 가문의 출신으로서 奈麻의 관등을 가지고 있던 강수 아버지는 이 治家를 신분적으로 ‘微者’라고 하였고, 또 유교정경을 배워 그 이름을 날리고 나아가 관료생활을 하고 있는 자신의 아들 强首의 배필로 治家의 딸은 어울리지 않는 것으로 보았던 것이다.

강수의 아버지가 治家를 ‘微者’라 한 것은 6두품 출신인 자신의 가문보다 격이 떨어진다는 의미에서 한 말일 수도 있다. 그러나 강수의 아버지가 강수의 배필로 邑中에서 容行이 있는 여자를 뽑으려고 하였다는

47) 중국의 경우에도 도구를 써서 많은 부를 축적·창출할 수 있었던 匠人은 일반 사람의 신분보다 높았는데 후대에 도구가 보편화되고 도구를 만드는 사람들이 증가함에 따라 장인들의 사회적 지위는 낮아지게 되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先秦시대에는 장인들이 여전히 상당한 우대를 받았다고 한다. 이에 대해서는 許進雄 지음·영남대 중국문화연구소 옮김, 1993 『중국고대사회 - 문자학과 고고학적 해석에 입각하여 -』, 지식산업사, pp.167~168 참조.

48) 이기백, 1974 「신라시대 육두품 연구」 『신라정치사회사연구』, 일조각 참조.

사실에서 미루어 볼 때 ‘微者’란 표현은 단순한 비교의 말이라기보다는 사회적으로 그 신분이 ‘微微’하거나 ‘微賤’하다는 뜻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金生傳에 ‘父母微 不知其世系’라 한 표현이나 率居傳에 ‘所出微 故不記其族系’라 한 표현 및 勿稽子傳에 ‘家世平微’에 나오는 ‘微’의 용례에서도⁴⁹⁾ 입증되리라 본다. 따라서 治家를 신분적으로 微者라고 본 강수 아버지의 생각은 治匠을 卑下해 보는 당시 사회의 인식을 반영해 주는 것이라 할 것이다.

네 번째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관직체계에 편제된 기술관직의 지위도 매우 낮다고 하는 점이다. 관직체계 내에 편제된 ‘尺’계열의 기술관직으로서 확인되는 것은 木尺·鉤尺·大尺·火尺이다. 이 가운데 상당 관등이 확인되는 것은 ‘大舍已下爲之’로 나오는 火尺 뿐이고 나머지는 상당 관등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 이는 기술관직이 관직체계 내에서 최말단의 관직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통일 이후에 와서 ‘척’계열 기술직의 지위가 하락한 것을 방증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⁵⁰⁾

2. 지위 하락의 배경

그러면 어떻게 하여 ‘척’계열 기술직이 사회적으로 微者로 인식되게

49) 『삼국사기』 권제48, 열전 제8 金生傳·率居傳·勿稽子傳

50) 척 이외의 기술관직으로는 ‘博士’계열이 있다. 成博士(淸州蓮池寺鍾銘), 鑄鐘大博士·次博士(聖德大王神鍾銘), 紙作伯士(白紙墨字大方廣佛華嚴經寫經跋文), 鍾成在伯士(禪林院鍾銘), 伯士(寶林寺北塔誌) 등이 그것이다. ‘박사’계열의 기술관직에 대한 자료정리와 성격에 대해서는 박남수, 1996 앞의 책, pp. 303~310 참조. 이 가운데 주종대박사는 대나마의 관등을, 차박사와 성박사는 대사의 관등을, 지각박사는 나마의 관등을, 박사는 급간의 관등을 소지한 것으로 나온다. 이러한 사실은 척계열의 기술관직 가운데 火尺만이 대사 이하의 관등을 지닌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는 ‘박사’계열의 기술관직이 ‘척’계열 기술관직보다 상위를 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척 이외의 기술관직에 대해서는 후일 정리해 보기로 한다.

되었을까. 사회적으로 범주화된 집단의 지위 변화는 사회운영의 방향과 일정한 함수 관계를 가진다. 신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통일 이후 ‘척’계열 기술직의 사회적 지위의 변화는 신라의 사회운영의 방향에 과 연관시켜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한 방향 중의 하나가 유교정치 이념의 강화와 이의 실천을 위한 유학교육의 강화이다. 신라의 유학교육 강화는 선덕왕 9년(640)에

夏五月 王遣子弟於唐 請入國學 是時 太宗大徵天下名儒爲學官 數幸國子監 使之講論 學生能用一大經已上 皆得補官 增築學舍千二百間 增學生滿三千二百六十員 於是 四方學者 雲集京師 於是高句麗·百濟·高昌·吐蕃 亦遣子弟入學 (『삼국사기』 권제5, 신라본기 제5 선덕왕 9년조)

이라 한 것에서 보듯이 당나라 國子監에子弟를 공식적으로 파견함으로써 본격화되었다. 이후 金春秋는 진덕왕 2년(648)에 당나라에 들어가서 국학에 나아가 釋奠과 講論하는 모습을 보고 또 당 태종으로부터 御製溫湯·晉祠碑·新撰晉書 등의 서적을 받아 가지고 돌아왔고⁵¹⁾, 신라 조정은 당시 최고 실권자였던 그의 건의에 의해 진덕왕 5년(651)에 국학에 大舍를 설치하였다.⁵²⁾

신라에서 유학교육은 신문왕 2년(682)에 國學을 정비하면서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신문왕의 국학 정비는 원년(681)에 일어난 金欽突의 반란을 평정한 후 관료계의 정비를 통해 지배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과 깊은 관련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⁵³⁾ 이 난을 평정한 신문왕은 왕권에 충성할 수 있는 인재의 양성을 위해 국학을 정비하였기 때문이다. 이 국학에서 교육된 교과목은

51) 『삼국사기』 권제5, 신라본기 제5 선덕왕 2년조

52) 朴淳教, 1999 『김춘추의 집권과정 연구』,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참조.

53) 김수태, 1996 『신라중대정치사연구』, 일조각, pp.27~28

教授之法 以周易尙書毛詩禮記春秋左氏傳文選 分而爲之業 博士若助教一人 或以禮記周易論語孝經 或以春秋左傳毛詩論語孝經 或以尙書論語孝經文選教授之 (『삼국사기』 권제38, 잡지 제7 직관 상 국학조)

에서 보듯이 주역·상서·논어·예기·효경 등 모두 유교경전이었다. 이리하여 유학교육의 열기는 더욱 확산되었고 유학을 배우려는 사회적 분위기가 강하게 형성되어 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잘 보여주는 것이 『삼국사기』 強首 열전의 다음 기사이다.

父欲觀其志 問曰 爾學佛乎 學儒乎 對曰 愚聞之 弗世外教也 愚人間人 安用學佛焉 願學儒者之道 父曰 從爾所好 (『삼국사기』 권46, 열전 제6 강수전)

위의 기사에서 보듯이 불교를 배울 것인가 아니면 유학을 배울 것인가라는 아버지의 질문에 강수는 世外敎인 불교 보다는 ‘儒者之道’를 배우겠다고 대답을 하였고 아버지는 이를 허락하였다. 그가 유교를 배우기를 택한 것은 불교를 배척했다기 보다는 실용적 학문으로서의 유교를 배우는 것이 신분의 제약을 극복하고 출세할 수 있는 첩경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일 것이다.⁵⁴⁾ 그리하여 강수는 스승에게 나아가 孝經·曲禮·爾雅·文選을 배웠다. 부자 사이에 이루어진 이 대화와 강수의 행동은 유학을 배우려는 당시의 사회 분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⁵⁵⁾

54) 김복순, 1995 「대가야의 불교」 『가야사연구』, 경상북도, pp.296~297

55) 이런 분위기는 이미 통일 이전부터 형성되어 가고 있었다. 진평왕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壬申誓記石에 두 명의 청년이 지금부터 3년 이후 忠道를 잡고 지킬 것을 맹세하고 또 별도로 3년동안 詩經·尙書·禮記·左傳을 읽을 것을 맹세하고 있는 것이 그러한 분위기를 반영해 준다고 할 수 있다. 임신서기석이 만들어진 연대에 대해서는 이병도, 1976 「임신서기석에 대하여」 『한국고대사연구』 소수, 박영사, pp.689~692 참조.

유학교육의 확산과 유학을 배우려는 사회적 분위기의 형성은 인재등용 기준의 설정에도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종래 인재등용에는 弓箭 즉 武藝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를 짐작하게 하는 것이 원성왕이 4년(788)조의 다음의 기사이다.

春 始定讀書三品以出身 讀春秋左氏傳 … 若博通五經三史諸子百家書者 超擢用之 前祇以弓箭選人 至是改之 (『삼국사기』 권제10, 신라본기 제10 원성왕 4년조)

위의 기사에서 주목되는 것은 ‘前祇以弓箭選人’이라 한 구절이다. 이 구절에 의하면 원성왕 이전에 신라는 인재를 등용함에 弓箭=武藝가 어느 정도 出衆한가를 중요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인재를 선발하는데 弓箭이 중요한 기준이 되었던 것은 삼국 사이에 치열하게 전개된 통일전쟁이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본다. 즉 전쟁을 효율적으로 치루기 위해서는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강할 뿐만 아니라 무예도 뛰어난 인재들을 선발하는 것이 매우 유효한 수단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일 전쟁이 끝난 이후 신라는 안정기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신문왕은 통일전쟁을 치르면서 성장한 眞骨將軍들이 소유하고 있던 무기들을 농기구로 만든다는 명분 하에 모두 거두어들여 이들의 무장을 해체시켜 버렸다.⁵⁶⁾ 그리고 통일왕조의 지배이념으로서 유교정치이념을 강조하였다. 신문왕대에 국학의 정비는 이런 상황에서 취해진 조치였던 것이다. 그에 따라 사회운영의 기준도 이제 武的인 측면에서 文的인 측면으로 轉化되게 되었다.

이러한 국가운영 방향의 전환은 인재를 선발하는 기준에도 변화를 가져오게 마련이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讀書三品科의 설치이다. 원성

56) 노중국, 1999 「통일신라기 구서당의 성립과 그 성격」, 『한국사론』 41·42, 서울대 국사학과 참조.

왕 4년(788)에 설치된 독서출신삼품과의 기본 목적은 『삼국사기』 국학조에

諸生讀書以三品出身 讀春秋左氏傳若禮記 若文選 而能通其義 兼明論
語孝經者爲上 讀曲禮論語孝經者爲中 讀曲禮孝經者爲下 若能兼通五經
三史諸子百家書者 超擢用之 或差算學博士 若助教一人 以綴經三開九章
六章教授之 (『삼국사기』 권제38, 잡지 제7 직관 상 국학조)

이라 한 기사에서 보듯이 유교경전에 밝은 자들을 상품·중품·하품으로 나누어 등용하고, 이들 가운데 五經·三史·諸子百家書에 두루 통달한 자는 超擢하기도 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리하여 인재등용의 기준이 완전히 유교경전에 대한 지식의 정도에 두어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국학에서의 修學이 관료진출이나 승진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원성왕 5년(789)에 子玉을 楊根縣 小守로 임명하려 하자 執事史 毛肖가

子玉不以文籍出身 不可委分憂之職 侍中議云 雖不以文籍出身 曾入大
唐爲學生 不亦可用耶 (『삼국사기』 권제10, 신라본기 제10 원성왕 5년조)

이라 한 기사에서 보듯이 文籍 즉 國學 출신이 아닌 자를 지방관으로 임명하는 것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학에서의 수학이 관리로의 진출에 큰 영향을 준다는 한 것도 이러한 경향을 잘 보여준다고 하겠다.

이렇게 인재 등용의 기준이 유교경전에 대한 지식의 통달 정도로 바뀌게 되면서 종래 중시되었던 弓箭에 대한 기술 즉 武藝는 점차 그 비중이 낮아지게 되었다. 그러나 武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武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연히 기술직에 대한 사회의 인식에도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을까 한다.

물론 武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技術職에 그대로 대입하는 것이 무리

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고구려의 경우 泉男生碑文과 泉男産碑文에서 이들이 자기 아버지 淵蓋蘇文과 할아버지를 ‘良治良弓’이라 표현한 것은 ‘治’와 ‘弓’ 즉 쇠를 다루는 기술과 무예를 연결시켜 볼 수 있게 한다. 즉 ‘良治良弓’이 기술적인 것과 무예적인 측면을 동시에 강조한 것이라고 하면 역으로 弓 즉 무예가 경시되면 治 즉 기술적인 것도 경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추론이 허용된다면 인재등용 기준이 유교경전에 두어져 武적인 요소의 비중이 낮아지게 되자 그에 따라 기술직으로서의 尺의 사회적 지위도 그만큼 낮아지게 된 것이 아닐까 한다. 그리하여 유학을 강조하는 강수의 아버지가 治家를 신분이 寒微한 자로 인식하게 되었고, 金生, 率居, 百結先生처럼 각각 글씨와 그림과 음악에 一家를 이룬 자들의 신분이 “所出微”, “父母微 不知其世系” 등으로 표현되지 않았을까 한다.

VI. 맺 음 말

필자는 앞에서 신라시대의 尺은 6세기 후반부터 그리고 干은 7세기 후반부터 기술직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기 시작하였고 통일 이후로 오면서 이들의 사회적 신분은 점차 저하되어 간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리된 본고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尺은 본래 初期國家 단계에서는 수장인 干 아래에 두어진 官名에 사용되다가 지방민을 대상으로 하는 외위체계가 갖추어지면서 一尺, 阿尺 등 하급의 外位 명칭에 사용되었다. 그후 왕경인을 대상으로 한 京位체계가 갖추어지면서 진흥왕대에는 尺은 ‘尺干’의 형태로 ‘干’계열 관등 명칭에 사용되었다.

이러한 尺이 기술직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금석문상에서는 戊戌塢作碑부터이다. 그리고 이 尺은 신문왕대에 樂工을 歌

尺·筋尺·舞尺·琴尺이라 한 것에서 보듯이 기술직을 가리키는 용어로 널리 사용되게 되었다. 통일 이후에 와서 국가체제가 정비되면서 기술직으로서의 尺의 일부는 관직체계 내에 편제되었지만 대다수의 적은 관직체계 밖에 남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들은 사회적 집단의 하나로 範疇化되어 갔다. 필자는 이들을 ‘尺’계열 기술직으로 부르고자 한다.

干은 본래 首長·族長을 나타내는 명칭이었으나 중앙집권적 국가체제가 갖추어지면서 귀족관료들의 상하 서열을 나타내는 관등명칭에 사용되었다. 그러나 통일 이후 왕실 업무를 관장하는 御龍省 산하의 관청에 ‘干’이라는 職名이 설치됨으로써 이제 ‘干’은 왕실에서 특정한 물품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직명을 가리키는 것으로 전화되어 가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보았을 때 내성 산하에 두어진 관원수를 알 수 없는 14개의 관청 가운데 倭典과 寺典을 제외한 錦典 등 12개의 관청에도 기술직으로서의 干이 들어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금석문 상에서 기술직을 보면 울진봉평신라비에서 진흥왕의 파운령비(568)에 이르기까지는 모두 ‘人’으로 표기되었다. 그러나 무술오작비(578)부터는 大工尺·道尺에서 보듯이 ‘尺’이 처음으로 나와 ‘人’과 함께 사용되었다. 그러나 통일 이후에 와서는 ‘人’은 더 이상 사용되지 않고 ‘尺’이 기술직을 나타내는 용어로 일반화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大工尺·△尺이 보이는 雁鴨池出土碑는 551년 경에 만들어진 것이라기 보다는 무술오작비와 비슷한 시기인 진지왕대(576~579)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7세기 후반에 와서 기술직을 나타내는 용어가 人에서 尺으로 바뀐 것은 尺으로 표현되는 기술직이 사회적 집단의 하나로 範疇化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사회적 집단의 하나로 범주화되면서 尺의 사회적 지위는 점차 저하되어 갔다. ‘척’계열 기술직인 歌尺·舞尺 등과 斧尺 등이 관직체계 내에 편제되지 않았단가 이들에게 상당 관등이 주어지지 않았

다든가 하는 사실이 이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장수의 아버지가 釜谷 冶家를 微者라고 표현한 것은 ‘척’계열 기술직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이 시기에는 매우 낮았음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다.

이처럼 척의 지위가 낮아지게 된 것은 무엇보다 통일 이후 사회운영의 방향과 관련되는 것 같다. 신라는 통일 이후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종래 ‘武’중심의 정치운영을 文중심체제로 전환시켰다. 그리고 유교정치이념을 국가운영의 새로운 지배이념으로 설정하여 國學을 정비하고 유학 교육을 강화하였다.

유학교육의 강화는 인재등용의 기준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종전에는 인재선발에 弓箭 즉 武藝를 중시하였지만 이제는 儒學에 대한 지식의 정도를 중시하는 것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상황은 武뿐만 아니라 기술직을 상대적으로 忽視하게 하였고 그 결과 기술직으로서의 尺의 사회적 지위도 하락되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이 본고의 요약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신라시대의 尺·干에 대한 논의가 거의 없었고 자료 또한 빈약하여 논지의 전개에 무리가 많았을 것이다. 또 干의 경우 기술직을 나타내는 용어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은 확인하였지만 그들의 지위와 그 변화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못하였다. 미비한 점은 叱正을 받아 수정·보완할 것을 기약하는 바이다.⁵⁷⁾

57) 신라의 기술직으로서의 尺과 干은 그 명칭에서 미루어 볼 때 고려 및 조선시대의 稱干稱尺과 일정한 연관성을 갖는다. 기왕의 연구성과에 의하면 조선시대 稱尺者의 起源은 신라시대의 尺과 연결시키고 있지만 稱干者의 경우는 고려시대의 處干·直干에 연결시키고 있다(유승원, 1987 『조선초기신분제연구』, 을유문화사, pp.189~201 참조). 그러나 신라시대에도 干이 기술직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었음이 분명하므로 稱干者의 기원도 신라시대의 ‘干’에서 찾아야 하지 않을까 한다. 이에 대한 검토는 후일의 과제로 남겨두기로 한다.

abstract

***Chuk*(尺) and *Khan*(干) of Shilla Period**

Noh, Choong - Kook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Chuk* and *Khan*, and the changes in social status in Shilla period. The term *Chuk* was used to refer to official ranks, government offices, government positions, and professional technicians as well. According to the epigraph on the monument of Chang-young(昌寧), professional technicians were referred to as *In*(人). From the monument of Ojak(塲作), *Chuk* started to be used along with *In* and by the late 7th century, *Chuk* was more generally used as a term to refer to a separate class of professional technicians.

On the other hand, *Khan* was the title of the chief leader of the earlier states but used to refer to high-ranking officials after the monarchical country was established. Since the 7th century, however, it had been recorded as an official position that manufactured and managed specific products for the affiliated offices in the King's Secretariat called *Naesong*(內省), which lends support to the claim that *Khan* started being used to refer to the professional technicians.